

시론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상식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회

상식(常識)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의미한다. 내가 본 입사 시험과 대학원 시험에서도 상식은 필수 과목이었다. 상식이 부족하면 취직도, 공부도 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후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1981년6월,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우리는 백 년 전 사람을 낳은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천 년, 2천 년 하면 원시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계의 모든 인류는 2천~2천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예수·소크라테스·공자·불타가 남겨 준 사상의 태두리와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전문적 연구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생의 진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2천 년 전의 그분들에 비하면 그 힘이 태양 앞의 촛불보다도 희미합니다.”라고 말했다. 2천 년 전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겨놓은 유산만 잘 공부하고 이해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참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상식인

된 처방, 즉 미래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갈수록 단편적인 지식, 또는 AI에 의존해 처방을 내놓으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종합적인 인간 형성, 즉 전인적(全人的) 발전이 대단히 중요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종합적 인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카터 정부 당시 어느 경제 장관이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의 수많은 학설 중 오늘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정한 처방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와서 인물이 적어지고, 전문가의 지식이 하등의 위력을 나타내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종합적인 인간 형성, 즉 전인적(全人的) 발전을 등한히 한 데 있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완전한 상식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할 수는 없다. 그래서 책을 통해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독서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지식 형성에 힘써야 합니다. 경제학자로 말하면, 경제 이외의 정치·사회·국민심리·역사 등에 대한 지식의 도출 없이 바른 경제정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은 내가 과거에 주위의 친구들에게 신문을 정치면부터 문화, 스포츠면까지 고루 읽으며, 월간 종합잡지 한 권을 정독하며, 외국에 대한 기사를 섭취하여 세계적인 인식을 가지며, 명작 고전문학을 널리 읽어서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영적 유산을 흡수하고,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전

문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고 자주 충언하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상식인인 것이며, 위대한 생각은 완전한 상식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다들 뿐 원리나 원칙은 공통 어느 한 분야에서 치열한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상에 도달한 사람, 즉 인생에서 큰 점을 찍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일을 해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융인술에 능한 리더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와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삼고초려(三顧草廬) 하면서 까지 모셔온다. 어느 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대개 다른 분야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현상이 다들 뻗, 그 원리나 이를 다루는 원칙이 공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주자와 특성이 다른 악기가 서로 소통하며 어우러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휘자가 특정 악기에만 집중한다면 연주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제6대 국회의원(1963.12~1967.6)이 되고 신문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지금도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다. “우리는 서생적(書生的) 문제 인식과 상인적(商人的) 현실 감각을 아울러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서생과 같이 양발을 원칙 위에 확고하게 딛고, 상인과 같이 양손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두 가지의 조화로움 발전을 기해야 합니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우리는 지금, 못다 핀 소년 문제학의 미래를 살고 있다

마지막날 계엄군에 의해 잔혹하게 죽어갔다. 그 옆에 먹다만 단팥빵을 바로 옆에 두고서.

노란 은행잎이 질펀하게 깔린 길을 따라 걷는다. 봄꽃 만발이나 이른 은행잎이 눈이 시린 이 계절, 가슴이 헛헛해진다. 낙엽 뒹구는 때 오히려 푸른 잎이 청정했던 청춘의 시기가 그리워지고 그 시절의 활기참이 떠오른다. 그러곤 그 아쉬움을 안으로 수그러 품어낸다. 앞을 땀구며 나목이 되어가는 이때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봄이 그리워 짐은 무슨 아이러니인지. 이러저러한 생각을 질정없이 하며 다다른 곳, 동구 인문학당이다. 지난 27일, 동구 인문학당이 첫 번째로 여는 ‘작가의 방’에 김호석선생이 초대돼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를 날 것 그대로 들었다. ‘마지막 입술’ 먹다 남은 단팥빵을 중심으로 한 5월작품이 그 이야기거리다.

동구 인문학당 2층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몰입한다. 그 중의 한 분이 앞단에서 묻는다. 이 시대 우리가 진 짐이 무엇이나고 김호석선생은 “피의 역사를 피의 역사로만 주장하는 한 광주의 역사는 치유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먼저 용서하자고 말한다. 광주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어떤 압박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세계인권역사의 산실이었다고 덧붙인다. 작품으로 들어간다. 먹다 남은 단팥빵, 그 소년의 어머니가 작품을 보았을 때 그 소년이 얼마나 컸을가, 작품 관객들도 이렇게도 가슴이 저미어 오는데, 거기 참석한 모든 이들이 너나할 것없이 저

마다 자신의 생각을 토해낸다. 먹다 남은 단팥빵은 그 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드러난 거 같다, 교련복을 부각시킨 것은 작가의 의도인 거 같다 등등이 쏟아져 나온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당시 무섭도록 적막이 컸다고 했다, 그 적막을 깨고 단팥빵을 먹었을 거다, 그리고 그 단팥빵을 다 먹기도 전에 조준사격에 의해 소라져 갔다, 그리고 강함을 드러낼 때는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작품을 둘러싼 배경과 그림에 대해 작가는 답변했다.

소설 ‘소년이 온다’와 그림 ‘마지막 입술’은 1980년 5월29일 도청의 마지막 날,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소년 문제학을 다룬 예술작품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작품을 교차로 읽고 보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노벨문학상은 한강 개인의 성과가 아니고 광주가 거둬들이는 결실이다, 자신이 그린 이 작품 역시 광주의 작품이라고 김호석선생은 단호하게 말한다.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했다. 예술은 미적 쾌락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기능을 되찾기 위한 ‘소통’과 ‘공감’이라고. ‘마지막 입술’이란 작품을 놓고 당시에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우리를 담금질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소년이 미처 살다가지 못한, 꿈꾸고 바랬던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금씩 선명하게 잡힌다.

안전한 겨울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또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에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일러 내부의 연통과 주변에 쌓인 재는 정기적인 청소와 함께 보일러 점화 시 인화성이 강한 액체(기름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초기대응이다. 화재초기의 감지와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 소화기

와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군민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준다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 수 있다. 안전한 겨울, 함께 만들어가자!

(이중화·곡성소방서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다시 해 넘기는 신안 흑산공항, 내년엔 꼭 착공됐으면

최대 난제였던 환경문제가 풀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신안 흑산공항 착공이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50인승 항공기 생산 중단과 사업성 부족에 따라 항공기 규격을 80인승으로 상향하고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은 30m에서 90m로, 착륙대는 50m에서 120m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예산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당초 1천833억원에서 6천7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다. 다만 정부의 사업 의지가 변함없이 확고한 만큼 승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시기를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흑산공항은 전남 서남권 숙원 사업이다. 아름다운 천혜의 다도해 경관을 자랑하는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나 접근성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교통 수단은 선박이지만 연간 결항률이 52일에 달하고, 평균 110일은 기상 여건 등으로 반나절 이상 통제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의 이동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흑산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배편 등으로 6시간 이상의 거리가 불과 1시간으로 줄어든다.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생태적 특성을 살린 테마별 전략 상품 육성에 탄력이 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생산유발효과는 1천535억원, 부가가치유발 645억원, 취업유발 1천180명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해 의료서비스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한시가 급한 마당에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으니 아쉬움이 더하고 있다. 공항 규모가 확대되면서 3년 예정이던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2027년 개항 일정도 재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본계획 수립 후 준공 계획이 계속 늦춰지면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야 하겠다. 교통 불편 및 섬 관광 기반시설이 대거 개선될 전망이다. 분초까지 다투는 도서지역 의료 사각 문제도 해결된다. 더 이상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내년에는 본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것이다.

주상복합시설 상가 비율 완화 광주시 기대효과 나올까

광주시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배어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상복합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광주시는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비율을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그 사정이 달라졌다. 부산·울산·대구·대전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됐으며, 광주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무더기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역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복구 임동 옛 전방·일신

방직 내에 복합소품몰 ‘더현대 광주’ 입점 등 대단위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측이 늘어나는 공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거와 용도(상가) 면적을 1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신청을 수렴했다.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면적 비율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어내고 건축 비용이 상당폭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방직공장 부지의 경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주장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주상복합건물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대규모 주거지로 변질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규제를 강화했던 과거의 사례를 광주시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공실률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진단에서 광주시가 도시계획의 큰 틀을 5년 전으로 되돌렸다.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한다. 사회 이슈로 떠오른 빈 상가 문제에서 비롯된 공동화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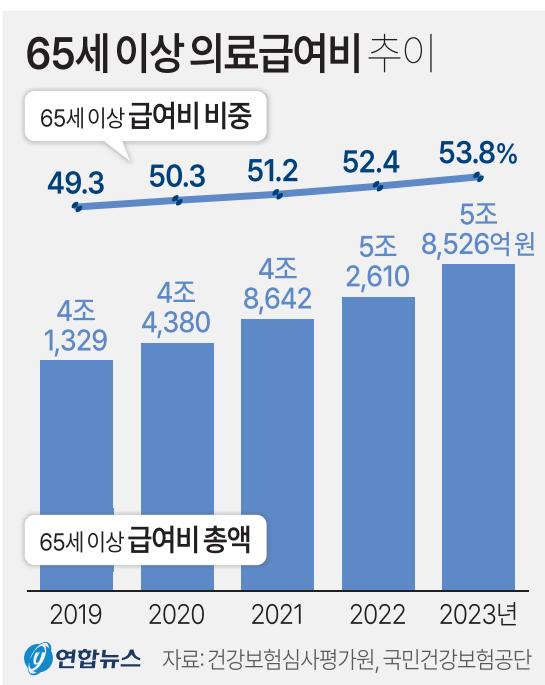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작년 의료급여 10조9천억원…54%가 65세 이상 진료비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총 10조9천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쓰였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천41명, 급여비는 총 10조8천800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작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소폭 줄었고,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약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작년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이보다 더 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천526억원으로, 2022년 처음 5조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에도 두 자릿수(11.2%)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급여비는 894만원으로,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678만원)의 1.56배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2023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608건 중 459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고, 37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부분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전기하터,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는 사용 편리성이 높지만,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열기구를 한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아 과부하를 방지해야하고, 오래된 전선이나 플러그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전열기구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